

24의 사람 시편 139:1-12

우리는 언약의 백성 복음은 증거 될것이고 귀중한 고백 감사 합니다. 오늘은 이해의 마지막 예배이고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4의 사람입니다. 성경중 많은 결말 중 하나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이끈다는 것이다. 멀리 있는게 아니라 언약 잡으면 그렇게 된다. 사단의 결박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생의 답이라고 정리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모세는 창세기를 쓴 사람이다.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 알고 있다. 익히 알고 있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시대적인 계획을 알려줬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수가 없었다. 어떤 상황 환경 상관없이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되고 진짜로 된다. 안 속아야 된다. 그 사람은 응답 받고 승리한다. 그리고 이 계획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은 시대적인 인물들이 되었다. 당연히 세상과 자기 개인 인생을 정복했다. 아주 승리하는 인생이었다. 이 놀라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시대적인 계획이 우리에게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신다. 무슨 일을 우연히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옛날부터 이미 말해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 반드시 되여지기 때문에. 아무도 가나안 땅 가는 것 막을수 없었다. 이 시대에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신게 뭐겠나? 그것이 부활메시지 4개이다. 부활하신 후 네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올때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야 하고 언약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짜 언약으로 잡으면 그 사람 인생 막을 사람은 없다. 언약이 진짜 되기 바란다. 그러면 못 막는다. 모세가 가나안땅 가는 것을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왕도 안된다. 왕이 죽는다. 광야에 뜨거운 햇빛, 다 아는 내용이다. 40년 실수 때문에 다녔는데 배고파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언약이고 자존심이고 권세이다.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면 안된다. 부활 메시지 4개, 내가 다시 올때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제자, 치유, 렘넌트, 237, 5천종족 땅끝. 우리는 요약해서 이것을 237, 치유, 서밋으로 잡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정복한다. 그 사람은 모세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마음 생각이 하나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은 세상과 사단과 자신의 인생을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24를 주실 것이다. 오늘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24년을 보내면서 희망의 새해 25년에 들어가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1. 24의 사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느낄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로 다 아시고. 2절을 보면 자신의 앓고 일 어섬을 아신다고 하였다. 멀리 계시도 자기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다고 하셨다. 막연한 추측성 고백이 아니다. 다윗이 그냥 해 본 말이겠는가? 그렇지 않다. 아마 사실을 확인한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잖아? 라는 체험을 하고, 앓고 일 어섬도 아시고 멀리 계시면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다. 많은 기도응답과 깨

달음과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을 많이 확인 하고 한 고백이다. 3절은 자신의 모든 길과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했다.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몇 번이나 그렇구나, 진짜로 다 알고 있었잖아, 이런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4절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5절은 자신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했다는 것도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윗에게 안수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안수한 것 아니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틀어서 6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기이하여, 이 지식이 진짜로 귀해서 내가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기이하다. 앓고 일 어섬,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를 내가 도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것이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알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이다. 너무 기이하여 내가 능히 그 사실에 믿음이 도달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진짜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다윗처럼 될 것이다. 고백할 것이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믿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나 내 인생에 대한 것이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디로 피하겠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8절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피할수 없고, 내가 무덤, 스올에 들어가도 안된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이유도 없고.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불드실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가장 힘 있을 때라는 말이다. 바다 끝까지 가도 주님은 거기도 계시다. 11-12절에는 전체적으로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11절에 보면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내가 불신앙에 빠졌다는 소리이다. 그 때에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12절에 마지막 부분이 이야기 했다.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하나님에게는 흑암이고 빛이고 상관 없다. 빛도 피조물이고 흑암도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그 위에 만드신 자, 창조주이다. 사단이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흑암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다 내가 만들지 않았냐? 니가 어둠 속에 있어도 상관 없이 나는 약속대로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란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흑 불신앙에 빠질 때에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무슨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제일 힘든게 흑암이고 사단인데, 그거하고 상관없다. 다윗은 이런 기이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완전 하나된 사람, 적어도 아주 깊이 하나님을 누린 사람임을 알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수없이 말씀하신다. 아마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그냥 통해버렸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오늘 제목이 24의 사람인데, 다윗의 이런 상태가 24의 기반이 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아시는 하나님 그안에서 깊은 소통이 24로 가는 근본상태이다. 사람이 땅에 살면서 가는 것이

24이다 이것이되면 내가 더 이상 할 일이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성경적인 응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성경적 인생을 살 것이다. 당연히 사단의 모든 역사를 정복한다. 사람의 말, 핍박을 능히 이긴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역전시킨다. 내가 아니고 언약이 이렇게 만든다. 이것이 약속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 권세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도전하는 것, 전쟁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약속대로 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역전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된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 언약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언약

2.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는 것 똑똑한데 바보도 있다. 모든 부분에서 똑똑한 것을 만드는 답이 그리스도이다. 다윗의 시편 전체 절반을 쓴 사람이다. 놀랍다. 기도이다. 기도를 기록한 것이 시편이다. 그 정도의 영성, 기도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영적상태가 되고 24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다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답이다. 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24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여정 기도의 여정, 출발 근본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한걸음씩 24의 도달, 그러면 25의 응답을 받는다. 원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이기에 여기에도 답이다. 원죄 이전에는 자동 24이다. 본래 언약이고 축복이고 약속인데 원죄 때문에 다 깨져서 노력해도 울어도 24가 마음대로 안된다. 그러나 원죄 이전에는 자동 24이다. 그래서 원죄 이후에 주신 답이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누리고 고백, 선포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한걸음 24로 가고 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간다. 혹 이런 저런 일이 안되는 사람, 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이 된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할 것은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언약으로 잡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 불신앙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위에 이미 와있는 응답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문가이다. 다른 사람이 몰랐던 그리스도를 누리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보았을 것이다. 제가 알기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는 알고 있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소리를 다윗은 들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받고 들었던 메시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도 말하지 못한 것을 들었다. 세계에 어느 목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진리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동의하는가 원죄에 대한 답인가? 누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는가 이것을 두고 어디로 가겠는가 다시 한번 언약을 잡아라 다윗은 멜기세덱의 언약을 따라 오신 것이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 그에게 십일조를 한 것은 믿음인데 그에 대하여 표현한 것은 없다. 다윗은 말했다 당신의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 히브리서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고 그러니 그리스도다. 대개 히브리서는 사도바울이 썼다고 한다. 그는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는가? 사도바울은 제 생각입니다. 다윗의 시편 110편의 고백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본다. 누가 논문을 써서 발표한다 해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그

리스도에 대하여 놀라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 사람이 연구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다윗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말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는 어떤가 그리스도가 답인가? 진짜 답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윗처럼 알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지금도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다. 그들이 해석이 성경적이라면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의 개인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다. 맞는가? 왜 그런가? 원죄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원죄 이후에 모든 문제 다 일어났다. 육신, 영적, 과거 현재 모든 것이 원죄 이후에 일어났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원죄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한다. 이 답이 뭔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에 생명 걸어야 한다.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전하는가에 내 응답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기에 여기에 인생을 걸으라. 내가 어느정도 답의 사람, 소원의 사람인가 여기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으라. 성경의 결론, 부인할 자 있는가 논문이 나왔다면 틀렸다고 말할 사람 있겠는가 그 사람은 귀신에게 온 것인데 그런 사람이 많다 신경 쓸 것 없다. 왜 우리가 1초라도 그런 단어에 내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러 교회왔다. 이것을 잡고 살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것 아니면 답이 없다. 이것을 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처럼 축복 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했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라 슬픈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슬플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하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뜻 아니다. 2025년을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그리 살 것인가 언약 잡고 정복하고 기도하면 살라.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냐 힘내라 끝이 오면 소망이 있다. 새로운 한해를 두고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라. 조용한 가운데 일단 마음에서 정복을 하라 이런 저런 걱정 염려 슬픈 생각을 박살을 내라. 그것은 하나님 뜻 아니고 소망을 가져라. 다시 한번 언약 잡아라. 깊이 기도하면서 언약을 보라.

성경의 결론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다른 것을 잡으면 이런 응답은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것 아니냐 네게 육신적인 어려움 주려고 죽었겠냐?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었다.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사단이 거짓말이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꺼꾸러 트려도 상관없다 그들은 이긴 줄 안다 착각이다 성경의 답은 뭔가 항상 역전이 안된 적이 없다. 핍박도 괜찮다. 누가 핍박을 하겠는가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언약이 깨지겠는가 누가 막겠는가 아무도 못막는 답을 가져라 이것 가지고 인생 행복 모든 문제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괜찮다. 그들이 이긴 줄 알지만 천만에 우리는 이긴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가올 새해를 두고 새로운 소망을 다시 한번 잡으라 위축되지 말고 불신앙 말고 언약 잡고 승리하라 언약은 세상을 정복한다.